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심방 약속이 있어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터져 집안에 물이 새는 바람에 가구들이 모두 물에 잠길 정도였다. 어쩔 수 없이 심방을 취소하고 방안의 물을 닦아내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듯 기도했다. “하나님, 성도들을 심방해야 할 주의 종이 이런 일로 시간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데 그 후에 보름도 채 안되어 신축건물(연립주택)을 사서 이사하게 되었다.

어느 날은 심방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당시 어린 아들 반찬을 해주기 위해 마트에 들러 계란 850원 짜리를 들고 계산대에 갔는데 150원이 모자라 계란을 살 수 없었다. 서글픈 마음으로 힘없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도했다. “하나님, 비록 가난하지만 주의 종이 된 것 후회하지 않습

니다. 그러나 어린 아들은 굶지 않게 해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집에 도착하여 30분 정도 되었는데 전화가 왔다. 남편이 직장에서 팔을 다쳤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었으니 보상금 520만원을 은행에서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집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찰하시고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려는 것이다.

교회를 건축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교회가 술렁거리더니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말았다. 목회 경험이 부족했던 터라 문제를 대처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두려움이 앞섰고 절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거센 바람이 불 때는 고개를 들지 말고 엎드려라!”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몰려와 온통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웠던 오산교회의 미래가 먹구름 뒤의 희미한 태양빛이 보이듯이 교회에 미래 소망의 빛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로 무사히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해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절실히 하나님을 찾게 되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고, 남들보다 무지했기에 낮에는 사역하고 밤에는 기도하며 늦은 밤에는 공부하다보니 학사학위 두 개를 수여받게 되었다. 고난을 통하여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교회가 깨져 절망에 빠져 있던 나에게 말씀으로 조언해 주시고 용기를 주신 총회장님께 거듭 감사를 드린다.

차명선 목사

✧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Pride goes before destruction,
a haughty spirit before a fall.
骄傲在败坏以前 狂心在跌倒之前。

✧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Humility and the fear of the LORD
bring wealth and honor and life.
敬畏耶和华心存谦卑，就得富有，尊荣，生命，为赏赐。

Good News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술이 무성한 장발인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습니다. 기회란 찾아왔을 때 앞에서 잡지 못하면 뒷머리는 미끄럽고 날아가듯이 손살같이 지나가므로 도무지 잡을 수가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기독교 잡지에서 재미난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 새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평균 4명의 사람으로부터 11번의 권유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행태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다음 기회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기회는 당신을 위해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특히 영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잡아야 합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죽은 후에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

니다. 시종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에 지체하지 말고 영혼구원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구원의 방법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죽은 뒤에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십시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From Internet ::

누룽지 할머니

집이 시골이었던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취를 했습니다. 월말 쯤, 집에서 보내준 돈이 떨어지면, 라면으로 저녁을 해결하곤 했어요. 그러다 지겨우면, 학교 앞에 있는 ‘밥할매집’에서 밥을 사 먹었죠. 밥할매집에는 언제나 시커먼 가마솥에 누룽지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오늘도 밥을 태워 누룽지가 많네. 밥 먹고 배가 안 차면 실컷 퍼다 먹으래야. 이놈의 밥은 왜 이리도 잘 타누.”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늘 친구와 밥 한 공기를 달랑 시켜놓고, 누룽지 두 그릇을 거뜬히 비웠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먹고 잠시 뒤돌아서면 또 배고플 나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늙으신 탓인지, 거스름돈을 원래 드린 돈보다 더 많이 내 주시는 거였어요. ‘돈도 없는데 잘 됐다. 이번 한 번만

그냥 눈감고 넘어가는 거야. 할머니는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을 미루고, 할머니의 서툰 셈이 계속되자, 저 역시 당연한 것처럼 주머니에 잔돈을 받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기를 몇 달….

어느 날 밥할매집엔 셔터가 내려졌고, 내려진 셔터는 좀처럼 다시 올라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심각한 얼굴로 단상에 오르시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모두 눈 감아라~! 학교 앞 밥할매집에서 음식 먹고, 거스름돈 잘못 받은 사람 손들어라.”

순간 나는 뜨끔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부스럭거리며 손을 들었습니다. “많기도 많다. 반이 훨씬 넘네.”

선생님은 침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밥할매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할머니께서 아들에게 남기신 유언장에 의하면,

할머니 전 재산을 학교 장학금에 쓰시겠다고 하셨단다. 그리고….”

선생님은 잠시 뜸을 들이셨어요. “그아들한테 들은 얘긴데, 거스름돈은 자취를 하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학생들에게 일부러 더 주셨다더라.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 그날 끓일 누룽지를 위해 밥을 일부러 태우셨다는구나. 그래야 어린 애들이 마음 편히 먹는다고….”

그날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유난히 ‘밥할매집’이라는 간판이 크게 들어왔어요. 나는 굳게 닫힌 셔터 앞에서 영영 울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가 만드신 누룽지가 세상에서 최고였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마6:3~4).

시간의구조조정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생활방식이다. 이는 물건을 줄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게 가짐으로써 삶의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미니멀 라이프의 전인차 역할을 한 것은 조슈아 필즈 밀번과 라이언 니커디머스라는 영미권 청년들이 연 웹사이트 ‘미니멀 리스트’를 통해서이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좋은 차, 큰 집, 넘쳐나는 물건을 가졌지만 주 70~80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며 물건을 줄이고 더 분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강조하였다.

이 미니멀 라이프는 ‘버리기’에서 시작된다. 필자도 미니멀 리스트들의 의견을 체험해보기 위해 집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입지도 않으면서 쟁여놓은 옷가지들, 1년에 한 번도 안보면서 먼지처럼 쌓여가는 책들, 내가 갖긴 싫고 남도 주기 아까운 다양한 물건들, 이렇게 물건을 버리고 버리니 쓰레기가 대어섯 봉투가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다보니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의 순간들에도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 기준을 정하는 데에는 나의 인생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필수사항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외에 불필요한 많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었구나.’란 깨달음이 돌아왔고, 불필요하게 보낸 시간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총회장 목사님은 올 초 ‘살아남으려면 구조조정하라.’는 설교를 하신 적이 있다. 이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가정, 단체에서만이 아닌 내 삶의 시간 속에도 필요한 것이었다. 시간의 미니멀 라이프, 구조조정을 통해서 더 값진 나의 삶을 보낼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

송현혜 자매
charisma0691@hanmail.net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6절)

좋은 사람보다
분명한 사람이 되라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6월 24일 (제956호)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좋은 교회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그것은 말하
나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회다. 그
래서 나는 우리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
고 자부한다.

어떤 분이 나에게 ‘왜 예수중심교회는 예
배 시간에 춤을 추고, 찬송은 왜 그리 오래
부르고, 악기소리는 왜 그리 크냐?’고 물었
다. 나는 그에게 대답 대신 조용히 성경을
찾아 펼쳐주었다. 시편 150편이었다. “나
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할찌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
과 통소로 찬양할찌어다 큰 소리 나는 제
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찌어다”(시150:3~5).

그리고 한 마디 덧붙였다. “우리 교회는 세
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가는 교
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크고 웅장한 건물, 파이프오
르간이 설치된 우아한 내부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대로 가는 교회, 신학을 전하는 교회가 아
니라 신앙을 성장시키는 교회가 좋은 교
회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패스컴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대형교회가 문제라고
들 하지만, 대형교회가 문제가 아니다. 대
형교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방법대로 잘
왔는데, 대형교회가 되고나서 주체가 누군
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추구해야 할 것
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게 문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 칭찬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
회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가 가장 좋은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다. 빌
라델비아 교회가 크고 웅장해서 칭찬하신
게 아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
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갔고, 하나님을 배
역하지 않은 교회였기에 때문이다.

우리 교회에 대한 나의 자부심이 여기에
있다. 비록 성전이 없어 체육관을 쓰고 있
지만, 비록 병들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로
가득하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
회이기 때문이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이
탈하지 않는 교회로 남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칭찬 받는 교회가 되자.

하나님이 여신 문은 닫을 자 없다

베트남(Vietnam)교단연합회 총회장단 일
행이 다녀간 후, 현지로부터 핍박이 거세
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 성도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우루과이(Uruguay)의 라구나(Laguna)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
초석 목사님의 설교를 잘 받으면 엄청난
복이지만, 잘못 받으면 보통 문제가 아
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원하시던 바다. “내가 불을 땅에 던
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
가 무엇을 원하리오 나는 받을 세례가 있
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
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
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눅
12:49~51).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10:34~39).

따라서 그 불이 붙었으면, 검을 받았으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도 불사하
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만이 사는 길
이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신 길이
다. 수많은 믿음의 선전들이 핍박과 순
교를 당하며 걸었던 그 길이다. 목사님이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이라고 고
백하신 그 길이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거센 핍박이 있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초대교회의 부흥, 로마의 복음화, 다 거
센 핍박과 순교의 피를 통해 나타난 사
건들 아닌가. 이는 바로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악한 마귀는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에

을 다해 그들을 왕처럼 대접하였다. 이
른 새벽부터 공항에 나가 피켓과 꽃다발
을 들고 열렬히 환영해주었고, 성가대는
마치 하늘의 찬양대가 내려온 것처럼 영
광스런 찬양을 준비하였다. 이른 새벽부
터 준비해야 가능한 일들이었다. 그 섬김
과 헌신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
랑의 모습이었기에 그들은 더욱 감동하
였다. 인천에서, 서울에서, 천안에서, 기
도원에서, 광주, 전주, 정읍에서, 진실로
교단 전체가 한마음으로 주의 종들을 왕
처럼 대접하였다. 이는 오로지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곧 “내가 진실로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
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
는 것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자

곧 불이 붙었다는 증거다. 지난 주일에
배에서 이시대 목사님은 “핍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징
표”라고 말씀했다.

마태복음 말씀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
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
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
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아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
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
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더욱 발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은 두려워 뒤로
물러가 침묵에 빠지는 것이 아니요, 더
욱 기도하며 치고 나가는 것이다. 선제
공격,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것이 우리
목사님께 배운 믿음이요, 신앙자세다. 목
사님께서 남대문 심야미팅을 통해 베트
남 목회자들에게 강조하고 강조한 말씀
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은 것
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
는다. 필자는 4박 5일 동안 베트남 목회
자들과 동행하며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어떻게 영접하였는지 직접 목도하였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정성

이고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의 권세자라서가 아니요, 오직 하나
님의 종이기에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한 것
이다. 그러할진대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
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실천을
돌아보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베트남 복음화의 문을 여셨다.
닫을 자는 없다. 우리 모두 한국에 다녀
간 베트남 목회자들이 공산치하에서 목
숨으로 교회를 지켜왔던 그 신앙으로 이
핍박을 이겨내고 베트남을 향한 하나님
의 뜻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합심하
여 기도하자.

한은택 목사
henry8828@naver.com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 KBS88체육관(화곡동)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빌4:9~13)

닮고 싶은 자를 모방하라

당신 일생에서 닮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중요함은 우리 인생의 목표에 이르는 데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성품에 홀딱 반했습니다. 열정적인 그의 모습이 제 성격과 맞아 좋았습니다. 그런 그가 대사로도 변화하여 역경의 삶을 사는 것이 존경스러워 그를 닮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성경을 읽다보니 지적향기가 나는 바울이 더욱 좋았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 중 가장 뛰어난 신학자이며 특별히 유럽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위대한 선교사였고, 13서신을 기록한 지식인이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11:1). ‘아하~ 바울에게도 롤모델이 있었구나.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나의 롤모델로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34년 목회하는 동안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수님을 롤모델 삼고 그분을 닮아가듯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예수님이 인생의 쫓대’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분이 제 인생의 쫓대입니다. 저 역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미치려면(及) 미쳐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33년 전 쯤 파주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그 때 파주교회 담임목사 집에 거했는데,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몸을 가누질 못할 정도로 힘이 풀려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그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음성에서 저는 울면서 “머리 둘 곳이 없어도 좋아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만물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답해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연탄가스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로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정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방배동 귀공자가 갑자기 집도 없는 신세로 전

락해 온실에서도 살고, 슬레이트집에서도 살고, 차를 공터에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잠을 청하는 신세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롤모델 삼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눅14:26)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좇았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원자탄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에 가서 개척하면 교회가 풍족할 거라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 우리 교회로 오게 해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달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로 오셨는데, 그 분이 나의 롤모델인 바에야 저도 마땅히 그래야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예수님처럼 기도의 일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도 기도하셨고, 산에서도 기도하셨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초석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가셔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처럼, 저도 나가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는 것뿐이고, 병든 자에게 손을 대고 안수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침을 뱉어 바르시니 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생적인 거요? 절대

병균이 옮지 않습니다. 병균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리다 보니 이단의 괴수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듣는 것조차도 감지하지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을 인생의 쫓대로 삼았던 바울도 들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행24:5). 바울은 미쳤어도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고 했습니다(고후5:13). 당연한 겁니다. 모방하고 닮아가려면 미쳐야 합니다. 적당히 하면 절대 롤모델의 반도 못 따라잡니다. 남들이 볼 때 미쳤다고 느껴야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방하고 닮아 가다보면 그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삼성이 처음부터 일류기업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닮아

다. GE (General Electric Company)나 SONY를 모방하다가 거기에 자기의 것(α)을 더하자 그들을 능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을 넘어 초일류기업을 꿈꾸며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요즘 벤치마킹(Benchmarking)이라고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으로 일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14:12)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갑자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국한된 곳에서 사역하셨지만, 지금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을 롤모델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

고,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큰 자가 되기보다 깨끗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낮아져 남을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가 되고,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는 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아닐 것이고, 언행심사가 달라질 거란 말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롤모델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모방은 제2의 창조다

신앙적인 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시고, 최고의 정치가이시며, 최고의 세일즈맨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 그 분에게서 지식을 배우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다면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롤모델로 삼다가 지금의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미국과 화친하며 롤모델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중국을 롤모델로 삼을 것인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걸출한 인물들을 롤모델로 삼아도 좋습니다. 자신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부분에 일인자를 롤모델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확실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롤모델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분 안에 영·혼·육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분 안에 있으니 닮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닮은꼴은 시간과 정비례 하는 법,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당신을 만인 위에 뛰어난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들 것이고, 그런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비트코인(가상화폐)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라

전 세계와 특히 한국에서 심각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주의 깊게 인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첫째, 화폐경제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기회손실과 원가를 발생시키고 이를 시장에 전가해야 한다는 것을 개발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그들은 인식하지만 인터넷 및 보도매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상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2009년 시점부터 2018년 6월1일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및 거래변동 사항을 볼 때 세 종류의 참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룹 1의 참여자는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 30일 사이에 참여하기 시작한 투자자들이며 총 48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채굴량 기준 약 9.6%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당 최고 취득원가가 U\$1,000.xx이기 때문에 취득원가만 보전되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며 잔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룹 2는 그룹 1의 참여자 중 어떠한 사유에서든 시장을 탈퇴한 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인수한 자와 자체적으로 채굴한 코인을 갖고 참여한 투자자들입니다.

화폐적 가치에 따라 비트코인이 거래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2017년 1월말 가격이 U\$1,000.xx에 도달할 때까지 비트 코인이 투자 적격한 상품으로 인식되고 대체 암호화폐도 발굴되도록 기여를 한 실질적인 암호화폐의 설계자이자 시장

임윤석 집사

개발자입니다.

그룹 3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입니다. 대부분 2017년 1월 이후에 참여하였으며 레버리지 및 공매매 거래를 하여 일부는 높은 수익을 창출한 투자자도 있으나 실질적인 담보와 여신을 제공하지는 그룹 2에서 다른 창구를 통하여 반대 거래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실현을 하지 못하고 재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ICO, 혹은 사전 매입을 통하여 미래에 출시되는 대체코인을 인수하는 건입니다.

ICO와 사전매입은 사용자 시장도 존재하지 않고 현존하지 않는 상품을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즉 개발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신뢰하고 미래에 취득할 보상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인건비와 프리미엄을 선급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기술, 상품, 특히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명성만 믿고 투자를 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왜’라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보입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꾸짖지 아니하고 후하게 주시는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라’고 하십니다. 동일하게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이기에 ‘왜’라는 생각을 갖고 모든 상황과 사물을 접해야 하는 시대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6월 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 1953년 정전협정 후 65년 만에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것을 보자니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취소나 진행이나를 두고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우려와는 달리 북미정상회담은 무사히 잘 치러졌으며 냉전 이후 적대관계였던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한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교단만큼 평화통일에 관심을 갖고 기도했었던 교단은 없을 것이다. 이초석 목사님은 누구의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이기 때문이요, 나라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큰 유산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통일된 조국이라고 말씀하셨다. 막바지 진통 끝에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첫 결실을 보니 평화통일이라는 목표가 한걸음 더 다가온 듯하다.

회담에서 다른 북미간의 공동성명은 완전한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 항을 포함하며 상호간 과감한 변화를 약속하는 성명이었다. 비록 회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북한이 세계무대에 첫 발을 내딛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다. 4개 항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이라 앞으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조율을 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는 속담을 기억하자.

지금까지 평화통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앞으로도 계속 기도가 이어져야 한다. 북한이 회담으로 국제무대에 첫 발을 떼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다. 끝까지 하나님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자.

김성일 형제
cre8tor@naver.com



:: 진리의 학당 ::

하늘의 천사들 (히브리서 1:5~6)

하나님께서 하늘 영계에 영들을 창조하셨다. 물질계를 창조하기 이전, 사람을 지으시기 벌써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보좌를 창조하셨을 때(히1:8), 그 하늘에 정권과 권능을 두셨으니(시103:19~22) 보좌와 천사들이요, 사람은 땅에서 창조하셨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실 때 경배하고 수종드는 직분을 받았다(히1:6).

천사는 형상은 없고 영과 인격뿐이므로 그때그때 상황을 따라 현현한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으로(창18:22), 모세에게는 불꽃으로 나타났다(행7:35). 또 바람, 구름, 별들로, 혹은 군대 등 다양각색의 모양과 기능으로써 하나님을 수종드는 시공을 초월하는 존재들이다.

천사는 조상도 없고 자손도 없는 영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번에 창조되었다. 구름 속의 수증기 같은 입자처럼 하늘에는 영들이 구름처럼 그렇게 충만하다.

천사들에게는 계급이 있다.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와의 사자가 있고,

천사장인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리고 이들 휘하에는 천군만군의 천사가 각각 속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애굽에서 그 후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율법을 주신 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일,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일 등 모두가 천사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었다. 계시록의 모든 역사도 천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예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저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 말하기를 시작한 그 현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니(행2:1~4), 성령이 임하실 때는 그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시는 천사가 수행하는 이것을 권능이라 하셨다(히1:7).

주님은 ‘내가 기도하여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는 기도로써 권능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주님이 죽을

을 맞보시려고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공생애를 수행하셨고,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권능들을 사용하셨지만,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돕는 천사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돕는 자 없이 연약한 육체로서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셔야 했으니 이로써 인류구속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마26:53~54). 주님이 마귀의 시험에 직면했을 때도(마4:11), 애쓰고 힘써 기도하실 때도(눅22:43~44), 부활하신 때에도 천사들이 수종했고(요20:12), 하늘에 오르실 때도 구름, 곧 권능들의 옹호를 받으셨으며(행1:9~11)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의 옹호 속에 오신다(막8:38, 살전4:16).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냄 받은 자들이다(히1:14). 방안의 전등이 어둠을 물리치듯 권능이 있어야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권능을 구하라는 것이다. 왜 무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주님

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눅12:8~9)’이라 하셨는데, 성령을 거역하고 섬섬하게 함으로 성령님의 손에 있는 권능들을 흡수시니 돕는 자 없이 혼자 발버둥 치며 문제 속에 허덕이는 것이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은 동격이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마10:1), 하늘에 가시면 성령을 보내실 터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하셨다(행1:8). 우리는 주인이신 성령을 심령에 모셔 체험하는 것이요 나타나는 현상은 권능들, 곧 천사들의 역사다. 이를 두고 성령충만이라 한다. 성령을 모셨으면 나를 수종드는 천사가 많아야 일할 수 있고, 세상을 극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 나를 돕는 권능이 배가되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고 순종하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함이 지혜요 영감이다.

박덕규 목사